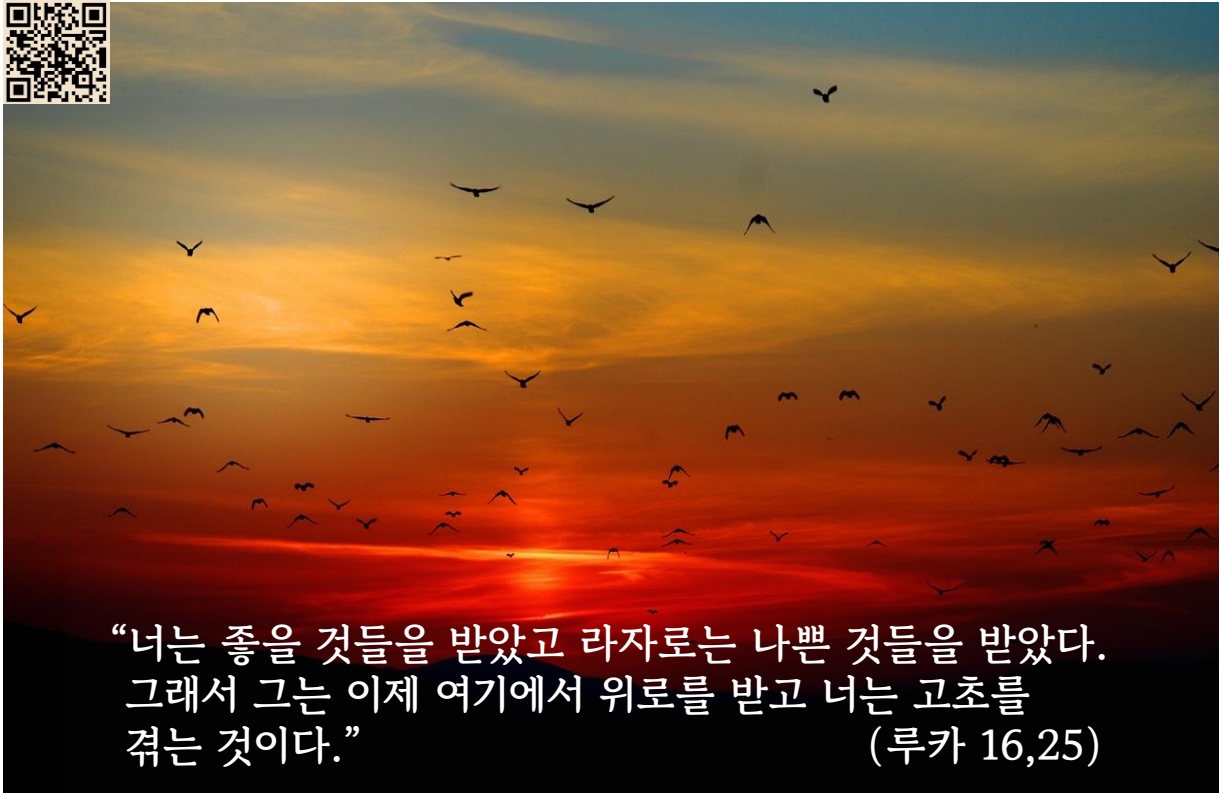


아케엠주보

연중 제 26 주일 / 한가위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 한가위)

Association of Korean Catholic Communities of the Middle East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연합회



“너는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루카 16,25)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AKCCME) 한국어 미사 시간]

수호성인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St. Francis of Assisi)

카 페 <https://cafe.daum.net/akccme>

회 장 우종관 대건 안드레아 (+971 50 940 7275)

편집/사무국장 박정인 미카엘라 (+971 56 701 7702)

발행인/전담사제 김성인 미카엘, OFM (+971 58 568 7985)

사 무 실 +971 2 446 1929

주 소 St. Joseph's Cathedral, Al Mushrif W24-02

P.O. Box 54, Abu Dhabi, UAE

관할지역 리비아, 모로코, 사우디 아라비아, UAE, 이란,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

- **UAE 아부다비** 성 요셉 성당:
첫째/셋째 토요일 12:00 *
- **UAE 두 바 이** 성 프란치스코 성당:
둘째/넷째 주일 14:00 *
- **UAE 루와이스/바라카** 성 요한세례자 성당:
둘째/다섯째 토요일 17:30
- **쿠 웨 이 트**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5:00
- **카 타 르** 목주의 성모 성당: 둘째 금요일 15:00
- **이집트 카이로**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1:00

* 미사가 없는 주에는 '공소 예절' 이 진행됩니다.

오늘의 전례: 연중 제26주일(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오늘은 연중 제26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가난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탐욕스러운 부자는 외면하시며, 무분별한 자들의 방종을 그치게 하시고, 짓눌리는 이들을 정의롭게 보살피십니다. 언제나 하느님의 말씀에 충실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느님 나라에 받아 주실 것을 굳게 믿읍시다.

• 제1독서

아모 6,1ㄱㄴ.4-7

• 제2독서

1티모 6,11ㄱ-16

• 복음

루카 16,19-31

• 영성체송

시편 119(118),49-50 참조

• 입당송 다니 3,29.30.31.43.42 참조

• 화답송 시편 146(145),6ㄷ-7.8-9ㄱ.9ㄴㄷ-10ㄱㄴ(◎ 1ㄴ)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을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복음환호송 2코린 8,9 참조

◎ 알렐루야.

-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네.

◎ 알렐루야.

• 보편 지향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굽어살피시어, 하느님 계획에 응답하는 미래의 건설에 이주민과 난민과도 함께하며 주님 안에서 한 형제로 살아가게 하소서.

2.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의로우신 주님, 정치인들을 주님의 사랑과 정의로 이끌어 주시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먼저 살피며 모든 이에게 이로운 정책을 마련하고 올바르게 실현하게 하소서.

3. 이주민과 난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유하신 주님,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생겨나는 이주민들과 난민들을 보살피 주시어, 가는 곳에서 환대를 받으며 정착하고, 조국으로 돌아가는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4. 축일을 맞이하는 김성인 미카엘 사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원한 사제이신 주님, 중동 한인 공동체의 목자로 세우신 김성인 미카엘 사제에게 강복하시어, 참희망이신 그리스도를 언제나 바라며 따르게 하시고, 사제에게 더없는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양 떼를 돌보는데 필요한 지혜와 용기와 사랑을 나날이 더하여 주소서.

오늘의 전례: 한가위

오늘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 한가위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섭리하시고 수확의 기쁨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웃과 서로 나누며 살아온 조상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본받읍시다. 자신을 위해서만 재화를 모으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도 나눔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며 주님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 제1독서

요엘 2,22-24.26ㄱㄴㄷ

• 입당송 다니 67(66),7

• 화답송 시편 67(66),2와 4ㄱ.5ㄷ과6.7-8(◎ 7)

◎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제2독서

묵시 14,13-16

• 복음환호송 시편 126(125),6

◎ 알렐루야.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알렐루야.

• 복음

루카 12,15-21

• 보편 지향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호자이신 주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돌보아 주시어,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봉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소서.

2.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분단된 저희 민족을 살피 주시어, 한가위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과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로하시며, 남북이 하루빨리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3. 세상을 떠난 조상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조상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후손인 저희가 오늘 더 특별히 그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4. 축일을 맞이하는 김성인 미카엘 사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원한 사제이신 주님, 중동 한인 공동체의 목자로 세우신 김성인 미카엘 사제에게 강복하시어, 참희망이신 그리스도를 언제나 바라며 따르게 하시고, 사제에게 더없는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양 떼를 돌보는데 필요한 지혜와 용기와 사랑을 나날이 더하여 주소서.

• 영성체송

시편 104(103),13-15 참조

[UAE] '한가위' 합동 위령 미사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주님!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시편 67(66),7

- ▶ 아부다비: 9 월 27 일 토요일 12:00, 페리쉬 홀
- ▶ 두 바 이: 9 월 28 일 주일 14:00, 성 프란치스코 성당

시편 130(129)



◎ 제 - 영 혼이 주 님을 기다 - 리나 이다



○ 깊은-구렁 속 에서- 주 님께 부르 짓사 오니



주님 - 제 소 리를 들어 - 주 - 소서



● 제가- 비는 소 리를 귀 여겨- 들으 소서



○ 주님 - 께서 죄 악을- 헤아 리신 다면



주님 - 감 당 할자 누구 - 이 - 리까



● 오 - 히려 용서 하 십이- 주 님께 있사와



더 - 더욱 당 신을 섬 기라 하시-나- 이다



○ 제 - 영 혼이 주 님을- 기다 리 오며



당 - 신의 말 씀을 기다 - 리나 이다



● 파수 -꾼이 새 벽을- 기다 리기 보다



제 - 영 혼이 주 님을 더 기다 - 리나 이다



○ 파수 -꾼이 새 벽을- 기다 리기 보다



이스-라 엘이 주 님을 더 기다 - 리나 이다



● 주님 - 께는 자 비가- 있사 읍고



풍요 -로운 구 속이 있음- 이 - 오니



○ 당신 - 께 서는 그 모든- 죄악 에서



이스-라 엘을 구속 하시-리- 이다



◎ 제 - 영 혼이 주 님을 기다 - 리나 이다

[아캠] 주보 성인 아씨시 성 프란치스코 축일 준비 9일 기도 (Novena to St. Francis)



10월 4일은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연합회의 주보성인이신 '아씨시 성 프란치스코 축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기 보다 기도 자체였던 성인의 삶을 본받아 관상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주보성인 축일에 각자 본당 미사에 참여하고 평화의 기도를 바치며 참다운 신심을 키워 나갑시다.

- ▶ 기 간: 9 월 25 일 ~ 10 월 3 일
- ▶ 방 법: '작은 형제회-프란치스코회 OFFICIAL'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캠] 상임 위원회 정기 회의

- ▶ 대상: 아캠 내 각 공동체 대표
- ▶ 일시: 9 월 27 일 (토), 20시 (UAE)
- ▶ 방법: 아캠 공용 줌으로 접속 (회의번호: 415-165-8183 / 비밀번호: 1004)



[UAE] '추석' 명절 위령 미사



- ▶ 아부다비: 9 월 27 일 토요일 12:00, 페리쉬 홀
- ▶ 두 바 이: 9 월 28 일 주일 14:00, 성 프란치스코 성당

- ※ 공동체에서는 차례상, 위령 명단, 연미사 예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미사 중 연도(시편 129편) 및 가족 분향이 있습니다.
- ※ 미사 지향은 당일 미사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종 레오 14세] 9월 기도 지향

9월: 우리와 모든 피조물의 관계

우리가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감을 받아, 하느님께 사랑받고 사랑과 존중을 받을 가치가 있는 모든 피조물과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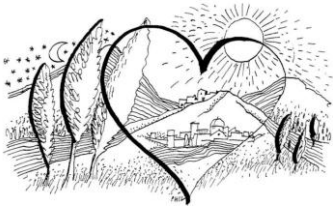


중동한인
AKCCME가톨릭
공동체

함께하며, 하나되며
모습들

‘2025 아케메제고리에 성지순례’ ②





2025 창조시기 기도문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시고,
공동의 집을 돌보도록 하나 된 믿음을 주셨으니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저희는 지금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주님의 창조세계에서, 또 저희의 참모습에서 너무 멀어졌음을 고백하나이다.

저희의 탐욕과 파괴의 충동이
주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또 지구와 맺은 관계를 깨뜨렸음을 인정하나이다.

비옥했던 들판은 메마른 땅이 되고, 숲은 황폐해졌으며,
강과 바다는 오염되었나이다.
풍요롭던 공동체들은 고통으로 물들고 땅은 부르짖고 있나이다.

사랑하올 그리스도님,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샬롬”하며 평화를 주셨으니,
연민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복돋워 주소서.
주님과 함께, 온 세계 신앙공동체와 함께,
인류 가족과 모든 피조물과 함께 온갖 갈등을 종식시키고
깨어진 관계의 올바른 회복을 위하여 일하도록 저희 마음을 밝혀 주소서.

평화의 임금이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상처를 통하여 다른 이들과 피조물의 상처를 돌보고
세상이 입은 상처와 굳건히 연대하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는 미래를 꿈꾸며
희망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저희 모두가 한 가족으로 모여 주님의 평화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하느님의 모든 백성이 안전하게 살아가며
평온한 안식처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025년 '희망' 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
세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Franciscus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번역)



순교자 성월 기도

한국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기도



- 이 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 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 저희는 현세에서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당신들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위대하신 순교자들이여, 천상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하느님의 자비를 얻어 주소서.
- 지금도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사오니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교회를 붙들어 보호하시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지역에까지 널리 펴시도록 빌어주소서.
- 용감하신 순교자들이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 당신들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시다가 목숨까지 바치셨사오니
- 전능하신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교회를 이땅에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와 수도자를 많이 나게 하시고
- 신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냉담자들은 다시 열심히지며 갈린 형제들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비신자들은 참신앙으로 하느님을 알아 천지의 창조주 인류의 구세주를 찾아오게 하소서.
-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여, 저희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빌어주시어 저희와 친척과 은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어주소서.
- 또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믿어 증언하며 비록 피를 흘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입어 선종하게 하소서.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②

26. 빨래는 한꺼번에 모아 세탁기에 돌립니다.물높이,세제는 적정량으로~
27. 집안 청소를 위해 손걸레를 만들어 쓰기
28. 언제 어디서든 '환경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합니다.
29. 하루의 마무리는 내가 남긴 생태발자국 계산하며 지구를 위해 기도하기.
30. 착한 온도로 건강하게 "겨울 19도, 여름 28도"
31. 과대포장된 상품을 파는 회사에 건의하기
32. 택배 박스는 테이프 제거하고 버리기
33. 내가 버리지 않은 쓰레기라도 줍기.
34. 필요없는 물건은 공짜라도 거절하기
35. 물건의 쓰임새를 한 번 더 생각해보기(재사용,재활용)
36. 배달음식 시킬 때,일회용 수저는 빼 달라고 요청하기,플라스틱에 담겨져 오는 배달음식 지양하기
37. 음식은 먹을 만큼만 요리하기
38. 실내조명 조도를 낮추고,필요없는 전등은 끕니다.
39. 위험한 원자력 에너지부터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절약 생활화하기
40. 택배로 시키기 전에 근처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기
41. 단열처리로 냉난방 절약하기
42. 하루,이틀,일주일...제로 웨이스트 실천하기
43. 계산할 때 미리 알려주어 영수증 인쇄하지 않도록 하기
44. 축산업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 찾아보고 서로 이야기 하기
45. 기후 정책을 올바르게 내세운 정치인에게 투표하기
46. 전자제품들도 하루는 쉬게 하기
47. 일주일 중 하루는 무(無)소비의 날
48. 나의 녹색 일과표 만들기
49. 지구의 아픔,기후난민,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모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
50.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받으소서' 읽고 되새기기



이 타락한 세상에 하느님이 내신 너무나 쉬운 길

글: 공지영 마리아(작가)

9월 7일 시성된 카를로 아쿠티스에 대해 내 후배가 말했다. “그 사람이 뭘 했다고 시성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나는 그에 대한 몇 권의 책을 주문해 읽었다. 그리고 한 주 내내 그의 생각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이런 일도 드문 일이었다. 후배의 말대로 겨우 이 지상에서 15년 동안 산 소년이 뭘 했길래 수많은 기적이 그를 통해 일어나게 된 것일까. 나는 책을 다시 펼치고 그가 한 일을 목록화해 보았다.

부모의 이혼으로 기가 죽은 친구들 집으로 초대해서 밥 먹기, 왕따당하는 친구에게 말 걸기, 놀이터에서 장난감을 빼앗겨도 화내지 않기, 규칙을 어기는 친구에게는 화내기, 쓰레기 줍기, 버려진 동물 집으로 데려오기, 거리의 청소부에게 인사하며 안부 물어주기, 할머니에게 부탁해 후식까지 챙겨 노숙자에게 나르기, 신발을 한 켤레 더 사주겠다는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며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 달라 부탁하기, 사춘기 시절 예쁜 여학생에게 친구들이 휘파람을 불자 “소피아가 개야? 왜 휘파람을 부니?”라고 화내기.

부유한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에서 몇 벌이 없는 그의 옷을 가지고 친구들이 촌스럽다며 놀리자, 그는 정색하고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고유하게 태어나. 명품이 뭐가 좋아? 모두 똑같이 생겼잖아. 남을 모방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면 좋겠니?”

내 머리카락이 쭈뼛해진 것 같았다. 지난번 소개했던 스캇 펙의 「거짓의 사람들」에서 그도 썼던 것이다. “악은 이상하게도 별 특징들이 없이 비슷비슷하다. 무조건 권력자에게 아부하며 그를 따르기 때문인 것 같았다. 그렇다면 선해지는 방법은 참 쉽다. 성자들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독특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저 자기 자신이 되면 된다.” 70세 노학자가 쓴 글과 15세 소년이 한 말은 이렇게 쌍을 이루어 내게 들려왔다.

진리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 비슷하게 선포된다는 말이 떠올랐던 것은 물론이다. 그렇다고 카를로 아쿠티스가 성경을 끼고 다니며, 근엄하게 있었던 소년이었나? 아니, 그는 혼자서 색소폰을 불었고, 컴퓨터왕이었다. 혼자서 성체의 기적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 프로그램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었다) 만들어 보급했다. 부모는 그가 죽은 후 그의 컴퓨터를 열어보았는데, 금지된 사이트에는 단 한 번도 접속한 기록이 없었다. 급성 백혈병으로 죽음을 앞둔 그는 어머니에게 말한다.

“슬퍼하지 마세요. 슬픔은 자기 자신을 향한 시선이지만, 행복은 하느님께 시선을 두는 거예요. 저는 늘 하느님 앞에 드는 일을 했으니까 편안히 죽을 거 같아요. 하지만 제가 죽은 뒤에 동생들이 태어날 거예요.” 그의 예언대로, 카를로 아쿠티스가 죽은 후 그의 어머니는 43살에 쌍둥이를 낳았다.

기록을 정리하면서 나는 약간 울었다. 이 중에서 내가 하기 어려운 일이 단 하나라도 있을까? 20세기 초반,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소화 데레사가 우리에게 큰 성녀가 되었듯이, 나는 21세기 밀레니엄의 첫 성인이 된 아쿠티스가 큰 분이라는 것을 직감한다. 부끄러운 내 마음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만 같다.

“산을 옮길 필요도, 병자를 낫게 할 필요도, 거대한 성당을 세울 필요도, 신대륙에 가서 공을 세울 필요도 없다. 걸작을 쓰지 않아도 된다. 그냥 사랑으로 살면 된다. 그것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있더냐?”



사.진.묵.상.



Peru, 2010 (사진, 글 by 박노해 가스파르 시인)

구름 사이 하늘 길

오래전 화산이 폭발해 옛 터전이 사라지고
새로운 대지가 솟아 만들어낸 높은 하늘 길.
고원의 밭 라당에서 일을 마친 농부들이
묵직한 수확을 등에 지고 귀가한다.
“하루 중에 이 길을 걸어올 때가 제일 좋아요.
땅은 비옥하고 작물은 쑥쑥 자라고요.
햇살은 부드럽고 바람은 시원하고요.
흙길은 말랑하고 꽃향기는 살랑이고요.
우리 이 길을 구름 사이 ‘하늘 길’이라고 해요.”

아캠 기금 납부 및 후원 안내

아캠 기금은 아캠 규정 '제15조 거룩한 직무를 위한 비용'에 따라 전담 사제의 성무활동비, 사무국 운영 및 한인 공동체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며, 중동지역 내 한인 공동체들의 '자발적 납부와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 인터넷 बैंकिंग 접수

Account Holder Name: JEONGIN PARK
Bank : Emirates NBD / Account Number: 0999501772101
IBAN: AE52 0260 0009 9950 1772 101
(송금시 reference에 이름 기재 부탁드립니다.)



 ARAKO 두바이 한인 부동산 Sale / Rent/ Off Plan 상담  오픈챗  최은정 셀레나 (055. 360. 0733)	SUZE 수제과일청 각종소스류 • 100% Handmade • 100% Fresh Fruits • 100% Organic Sugar 홈카페 / 내,외국인 선물 / 단체주문 박혜정 안젤라 (058. 580. 2814) /  : angela7204	GULF KOREAN TIMES 걸프 코리아 타임즈 • 중동 대표 한인 교민 신문 • 소셜 미디어를 통한 비즈니스 홍보 & 마케팅 기회 제공 • 외국 커뮤니티와의 협력, 유대 기회 정미숙 라파엘라 (광고 문의) (+971) 50 461 3991 /  : @gktmedia
---	--	--